

12-19 (통권 제 490호)

2012. 6. 1.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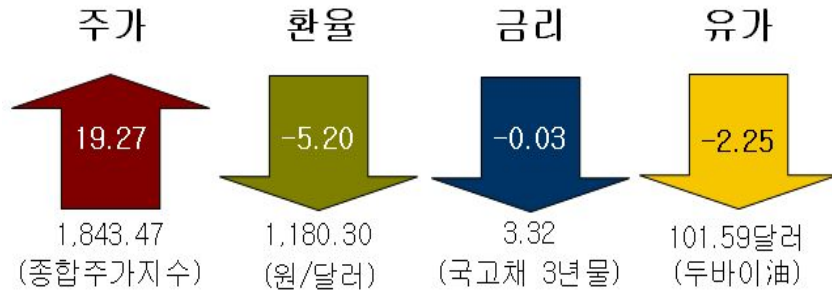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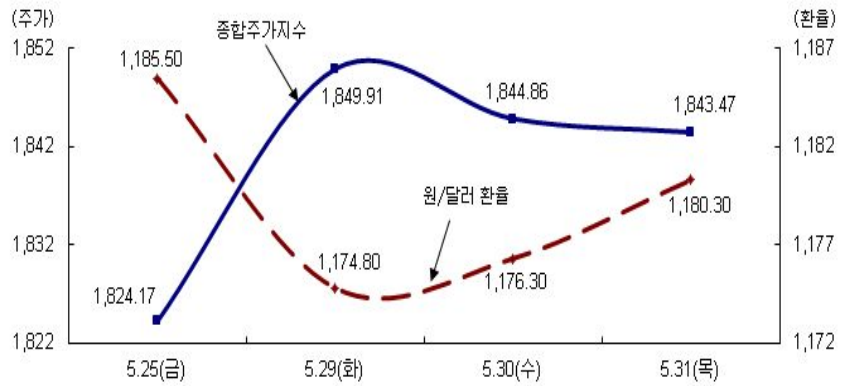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명목소득은 2만 달러, 생활수준은 3만 달러
- 실질 구매력으로 본 한국의 생활수준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25~5.3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명목소득은 2만 달러, 생활수준은 3만 달러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대표 집필 : 김 민 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Executive Summary

□ 명목소득은 2만 달러, 생활수준은 3만 달러

- 실질 구매력으로 본 한국의 생활수준

■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GDP 지속 상승

명목 기준 한국의 일인당 GDP는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다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1년 2만 2,778달러로 세계 34위로 평가되어 여전히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구매력평가 기준 한국의 일인당 GDP는 명목 기준보다 더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며 2011년에 환 1,714달러(세계 25위)를 기록하여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 구매력기준 항목별 생활수준 분석

OECD가 2011년에 발표한 2008년 기준 구매력평가 부문별 주요 생필품 가격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의·식·주·복지·문화'(衣·食·住·福祉·文化)의 소비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실제 구매력으로 본 한국의 생활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衣) 한국의 의류 및 신발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 낮다. 국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높으나 영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食) 한편, 한국의 식료품 가격은 OECD 평균보다 3% 높다. 국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높으나 일본보다는 매우 낮다. 한국의 식료품 가격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곡류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고기,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야채 등 다른 부문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호식품인 주류 및 비주류 음료의 가격 수준은 OECD 평균보다 각각 20%, 33% 높다. 하지만,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의 담배 가격은 OECD 평균보다 51% 낮게 나타났다.

(住) 한국의 주택, 수도, 전기, 연료비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47% 낮다. 특히, 수도, 전기, 연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낮아 주거 관련 비용이 낮은 편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동차, 기차, 차량 등 모든 운송 서비스, 운송장비 및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교통비는 OECD 평균보다 30% 낮게 나타났다.

(福祉) 의료 서비스와 의료용품을 포함하는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48% 낮아 의료비 부담도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文化) 우편, 전화, 팩스 장비 구매 및 서비스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통신비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이 OECD 평균보다 41% 싸고 한국의 오락 및 문화 관련 비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24% 저렴하다. 한국의 음식 및 숙박 서비스 가격은 OECD 평균보다 5% 낮게 나타났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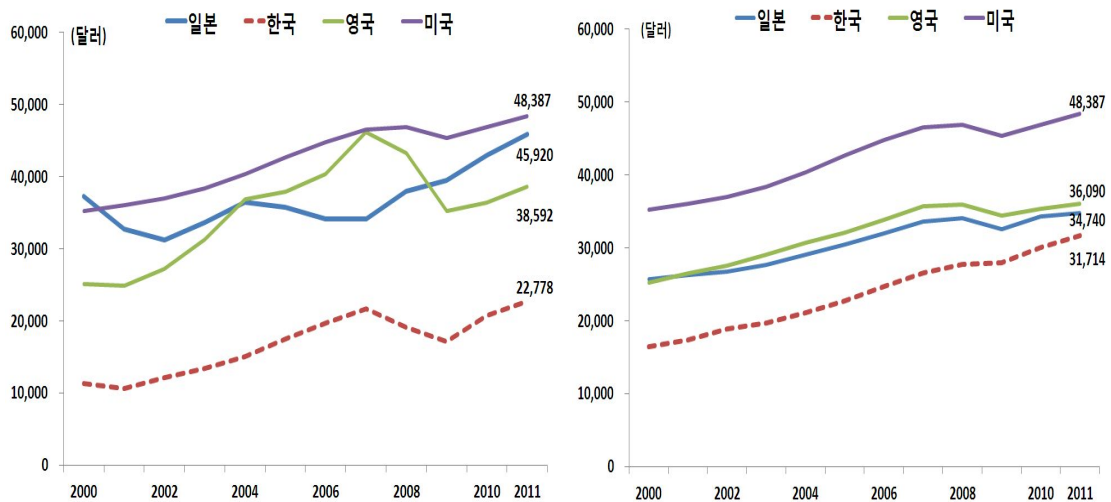
한국은 실질구매력으로 볼 때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민 경제와 밀접한 필수 식료품 특히 고기, 야채 등의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식료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전기, 수도 등 공공 인프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과소비나 재정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 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점진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1.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GDP 지속 상승

○ 한국의 구매력평가¹⁾ 기준 일인당 GDP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며 2011년 기준 3만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25위²⁾ 기록

- 한국의 명목 일인당 GDP는 2011년 기준 2만 2,778달러로 세계 34위를 기록했지만,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GDP는 3만 1,714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5위 달성
- 명목 기준 한국의 일인당 GDP는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다 상승세로 전환되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음
- 하지만, 한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GDP는 명목 기준보다 더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며 2011년 기준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매우 근접함에 따라 한국의 생활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진입
- IMF에 따르면,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GDP는 한국이 일본을 2017년에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명목 일인당 GDP 추이 > < 구매력평가 일인당 GDP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주 : 2011년은 추정치임

1)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GDP는 각국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량과 물가수준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2) PPP기준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미국 6위, 한국 25위, 일본 24위, 영국 20위를 각각 나타내고 명목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미국 14위, 한국 34위, 일본 18위, 영국 22위를 나타내 PPP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일인당 GDP는 명목대비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많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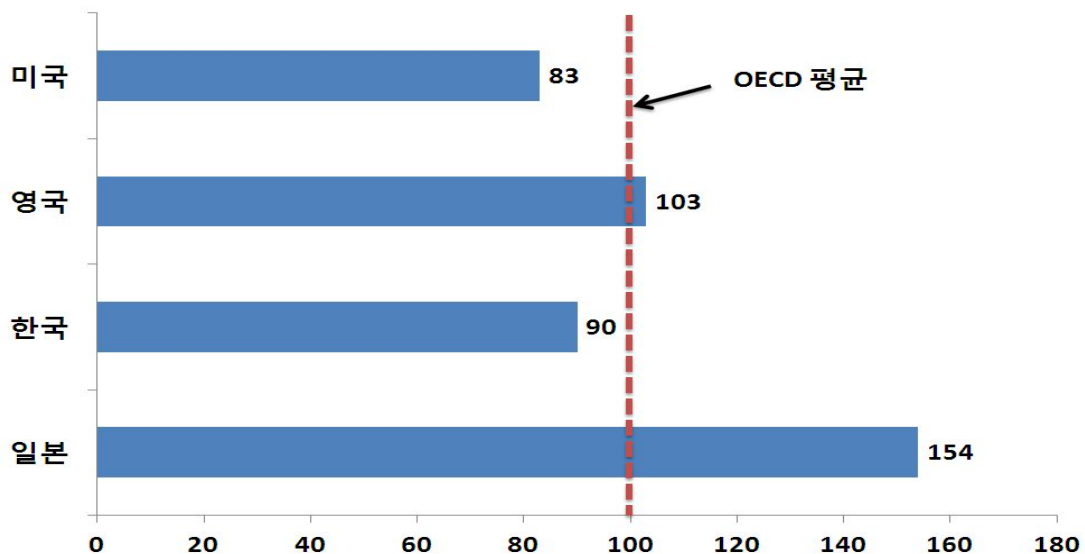
2. 구매력기준 항목별 생활수준³⁾ 분석

1) 衣

○ 의류 및 신발

- 한국의 의류 및 신발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이나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
- 한국의 의류 및 신발 가격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 보다는 8% 높으나 OECD 평균 보다는 낮음
- 하지만 일본의 의류 및 신발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 보다 54% 높게 나타남
- 영국의 의류 및 신발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3% 높게 나타남

< 의류 및 신발 >



자료 : OECD, 「Eurostat-OECD Purchasing Power Parity (PPP) Programme (2008)」, 2011

주 : 1) 각 나라의 환율에 대한 각국의 부문별 PPP 환율(PPP 환율(PPP in national currency per US dollar)의 비율을 산출한 다음에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하여 각 나라의 부문별 상대적 물가 지수를 산출함

2) Eurostat-OECD Purchasing Power Parity (PPP) Programme은 3년 마다 이루어지며 2011년 조사 자료는 2013년 발표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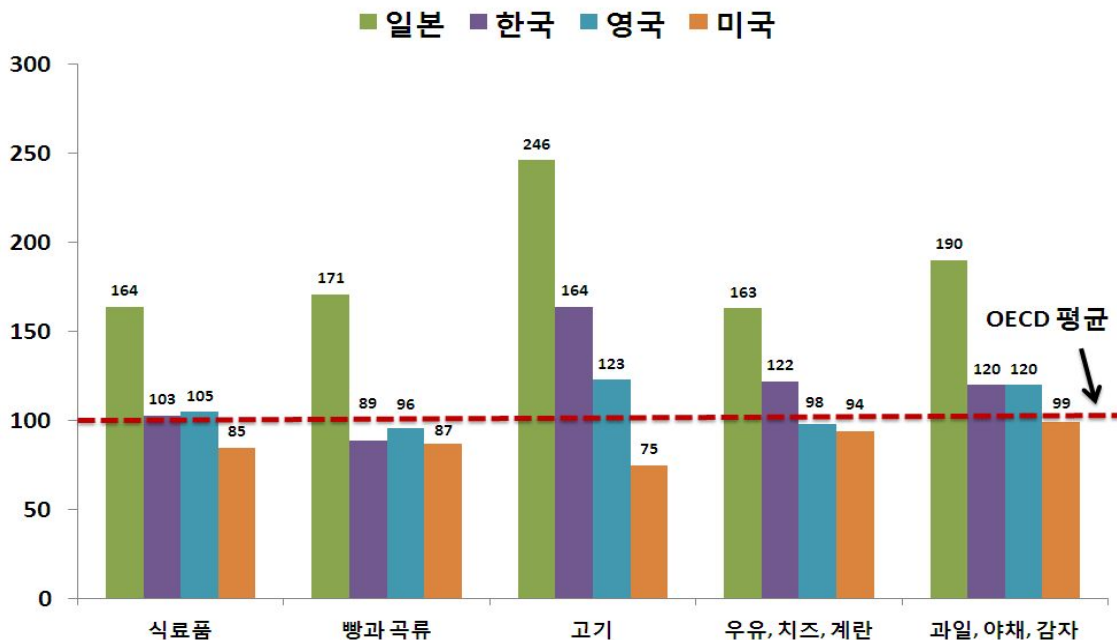
3) 생활수준 분석을 위해 각 나라의 구매력평가 기준 상대적 물가 수준을 비교 분석함.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하여 이 수치보다 높으면 그 항목의 상대적 물가 수준이 OECD보다 높은 수준을 의미하고 100보다 낮으면 그 항목의 상대적 물가 수준이 OECD보다 낮은 수준을 의미함

2) 食

○ 식료품

- 한국의 식료품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미국 보다는 높으나 일본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 보다는 3% 정도 높음
- 한국의 식료품 가격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빵과 곡류는 OECD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고기,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야채 등 다른 부문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일본 보다는 매우 낮음
- 특히, 고기의 경우 한국은 OECD 평균 보다는 64% 높음
- 미국의 식료품 가격은 빵과 곡류, 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과일 등 모든 측면에서 OECD 평균 보다 낮아 미국은 OECD 대비 15% 식료품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식료품 가격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평균보다 64% 높게 나타남

< 식료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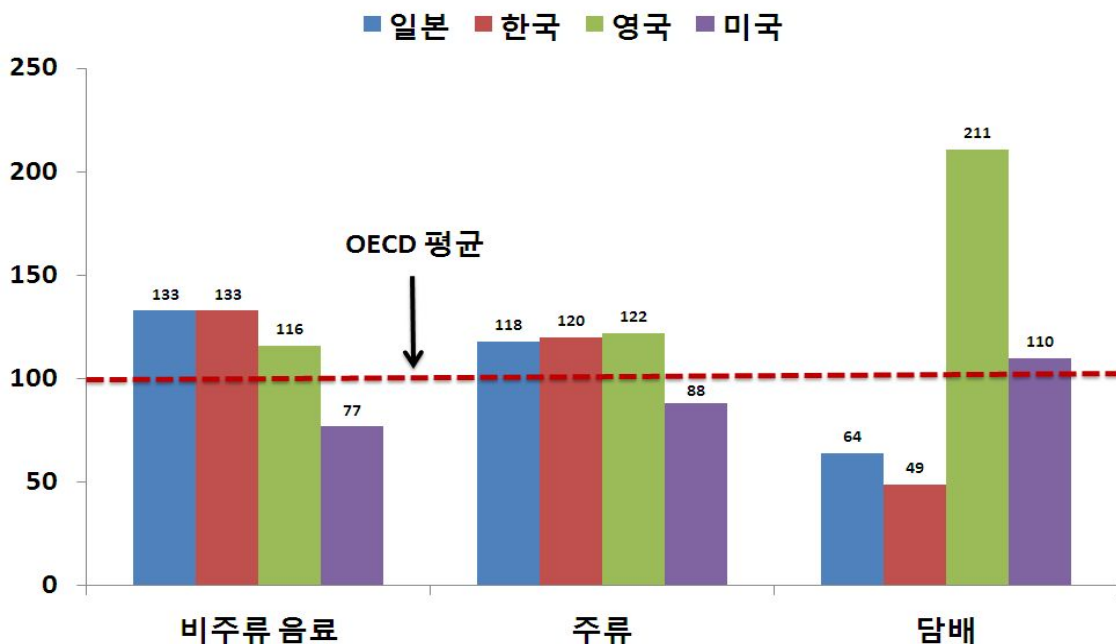
자료 : OECD, 「Eurostat-OECD Purchasing Power Parity (PPP) Programme (2008)」, 2011
 주 : 1) 식료품은 빵과 곡류, 고기, 우유 및 계란, 과일 및 야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카테고리임

○ 기호 식품

- 기호식품인 주류 및 비주류 음료의 한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가격은 OECD 평균 보다 각각 20%, 33% 높게 나타남
 - 한국과 일본, 영국에서 주류 및 비주류 음료의 구매력평가 기준 가격은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미국에서 이들 가격 수준은 OECD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남
 - 한국에서 구매력평가 기준 비주류음료 가격이 미국보다 73% 높게 나타났고 주류음료는 미국에 비해 36% 높게 나타남

- 반면에, 한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담배 가격은 OECD 평균 보다 매우 낮음
 - 한국과 일본에서 구매력평가 기준 담배 가격은 OECD 평균 보다 각각 51%, 36% 낮음
 - 반면에, 영국과 미국에서 구매력평가 기준 담배 가격은 OECD 평균 보다 각각 111%, 10% 높은 수준임
 - 기호 식품에 대한 구매력 기준 가격 수준의 차이는 각 나라의 조세 제도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기호 식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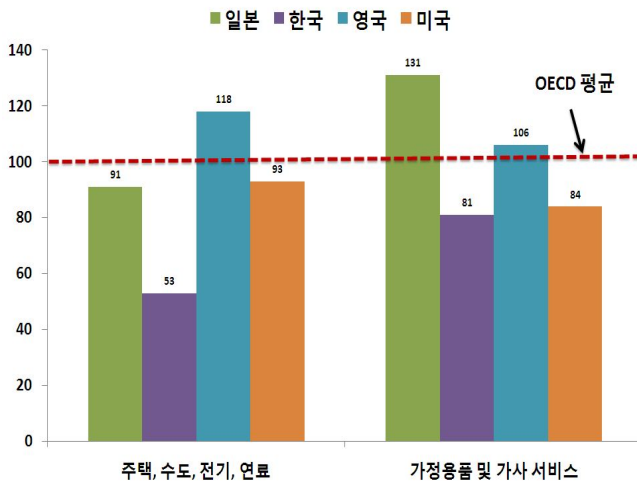
자료 : OECD, 「Eurostat-OECD Purchasing Power Parity (PPP) Programme (2008)」, 2011
 주 : 1) 비주류음료는 주스, 물, 커피, 차, 탄산음료 등을 포함하고 주류는 증류주, 와인, 맥주 등 모든 알코올음료를 포함

3) 住

○ 주거 및 가정용품

- 한국의 주택, 수도, 전기⁴⁾, 연료비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47% 낮게 나타남
- 한국은 명목 기준 주거 임대료는 높으나 수도, 전기, 연료 가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주거 관련 비용 수준이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보면 다른 선진국 보다 낮게 나타남
- 하지만, 한국의 가구 및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비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미국보다 4% 낮고 OECD 평균 보다는 19%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일본의 주택, 수도, 전기, 연료비 수준은 OECD 평균보다 9% 낮으나 가구 및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비용 수준이 31% 높음
- 영국은 주거 관련 비용,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비용이 OECD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PPP 기준 주거 및 가정용품 > < 명목 기준 주거 임대료 >



아파트 임대료 (명목 기준)	
국가	임대료(\$)
미국	3,122
한국	2,602
영국	2,144
일본	1,791

자료 : 1) OECD, 「Eurostat-OECD Purchasing Power Parity (PPP) Programme (2008)」, 2011

2) 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2010.

주 : 1) 주거비용은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 및 귀속 임대료, 주거 유지 보수, 수도, 전기, 연료 등 주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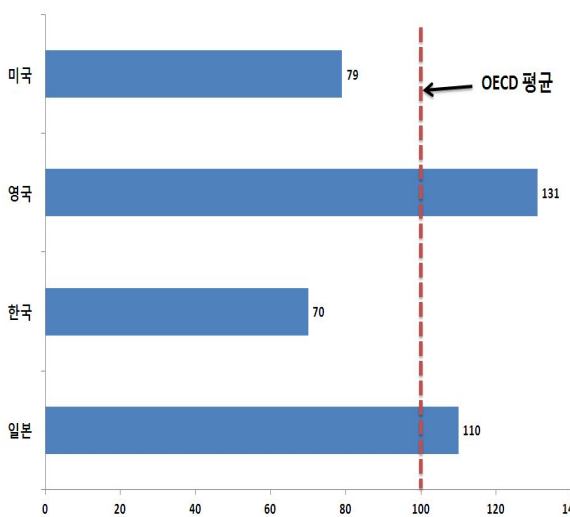
2) 아파트 임대료는 방 3개 아파트의 2009년 월세 기준임

4)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2011년)에 따르면, 명목 기준의 가정용 전기요금(USD/kWh) 가격은 kWh 당 한국은 0.0834달러, 일본은 0.2322달러, 영국은 0.1990달러, 미국은 0.1158달러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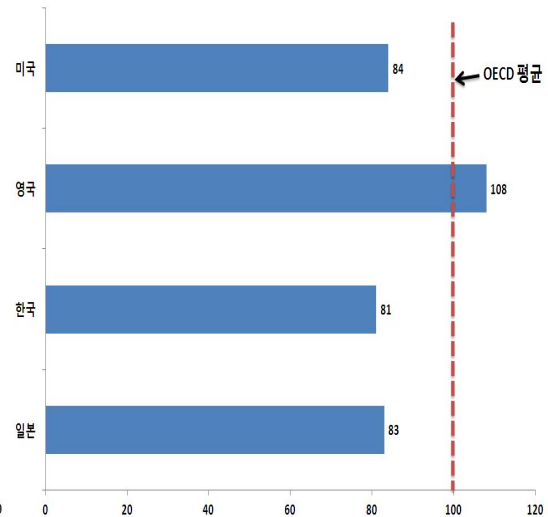
○ 交通비 및 개인운송장비 구입과 유지 관리비

- 한국의 교통비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30%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기차, 차량 등 모든 운송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교통비 수준은 구매력평가 기준 한국과 미국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영국과 일본은 OECD 평균보다 각각 31%, 10% 높게 나타남
- 한국의 개인운송장비 구입과 유지 관리비용은 OECD 평균보다 19%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모터사이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용 운송장비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가격을 포함하는 개인운송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일본, 한국, 미국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이들 국가는 OECD 평균 보다 각각 17%, 19%, 16% 낮게 나타남
 - 반면 영국은 OECD 평균보다 8% 높은 수준을 나타냄

< 교통 >



< 개인운송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



자료 : OECD, 「Eurostat-OECD Purchasing Power Parity (PPP) Programme (2008)」,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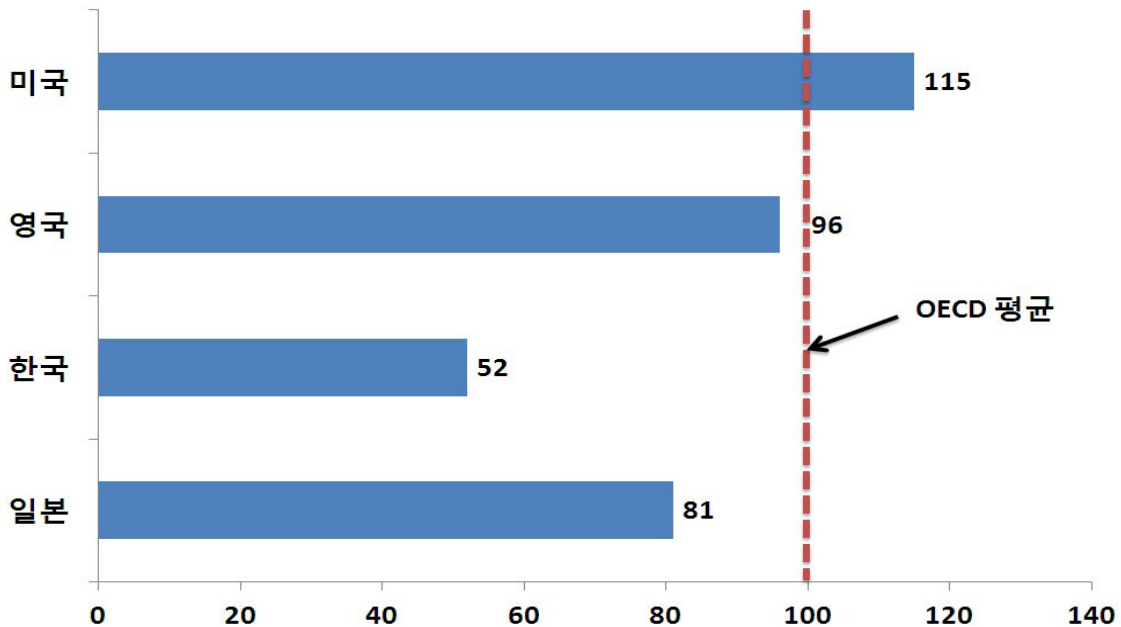
- 주 : 1) 교통은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는 상위 카테고리임
 2) 개인운송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개인운송장비 구입 및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개인운송장비 연료, 개인운송장비 유지 및 수리에 들어가는 서비스 등 모든 비용을 포괄함

4) 福祉

○ 의료비

-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 용품을 포함하는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48% 낮게 나타나 의료비 부담이 한국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일본, 영국의 의료비 수준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미국은 OECD 평균보다 15% 높게 나타남
- 영국은 무상의료시스템 구축, 일본도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포함, 한국도 국가 차원의 의료 보험 시스템이 구축된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회사가 의료 시스템을 담당하여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의료비는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아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용품에 대한 부담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비 >



자료 : OECD, 「Eurostat-OECD Purchasing Power Parity (PPP) Programme (2008)」,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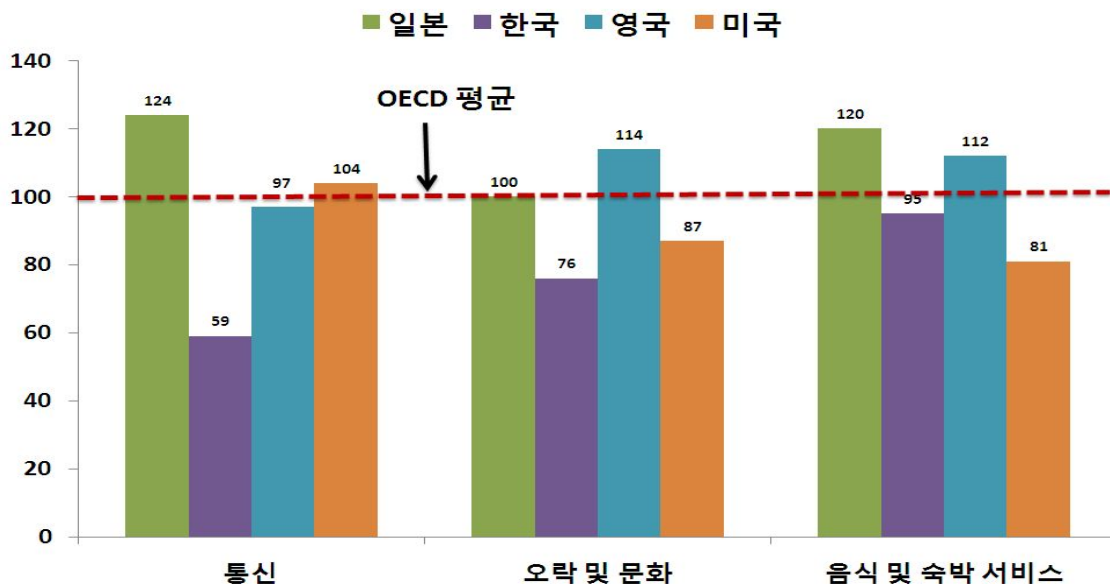
주 : 1) 의료비는 의료용품 및 장비, 의료 서비스, 치과 서비스, 준의료 서비스, 병원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비용을 의미함

5) 文化

○ 통신 및 레저

- 우편, 전화, 팩스 장비 구매 및 서비스 모든 관련 비용을 포함하는 통신비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이 OECD 평균보다 41%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매력을 고려한 통신비 수준은 낮은 수준임
 - 반면에 일본의 통신비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 대비 24% 높고 미국도 4% 높은 수준임
- 오락 및 문화, 음식 및 숙박 서비스 등 레저비용 역시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한국의 오락 및 문화 관련 비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24% 낮게 나타남
 - 한국의 음식 및 숙박 서비스 비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미국 보다 17% 높게 낮으나 OECD 평균보다는 5%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통신 및 레저 >



자료 : OECD, 「Eurostat-OECD Purchasing Power Parity (PPP) Programme (2008)」, 2011

- 주 : 1) 통신비용은 우편, 전화, 팩스 장비 구매 및 서비스 관련 모든 비용 포함
 2) 오락 및 문화는 음향, 영상, 사진 및 정보처리 장비, 기타 오락 및 문화 용 주요 내구재, 오락 및 문화 서비스, 기타 오락용품, 조경 용품 및 애완동물 관련 용품, 오락 및 문화 서비스, 신문, 서적 및 문방구, 단체여행 등을 모두 포괄함
 3) 음식 및 숙박 서비스는 음식점, 구내식당 및 숙박 시설비용을 포함함

3. 시사점

- 한국의 명목 일인당 GDP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일지라도 각 항목별 가격 수준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실질적인 생활은 선진국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됨
 -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의 항목별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의 실질적 생활수준은 명목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한국의 식료품 특히 고기, 야채 등의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음에 따라서 이러한 필수 식료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함
 -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비축 물량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
 - 한편 농수축산물에 대한 탄력적인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을 원활히 조절하여 수급 안정 유도
 - 산지-운송-소비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필수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유도
 - 한편, 공공 인프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인 가격 현실화를 고려해야 함
 - 특히, 전기, 수도, 및 기타 주거 연료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다만,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 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점진적인 대책 필요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1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0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5월 25일	5월 31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75	1.56	-0.19%p
	엔/달러	81.19	80.66	77.66	79.56	79.10	-0.46¥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535	1.2367	-0.0168\$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455	12,393	-62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580	8,543	-3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35	3.32	-0.03%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85.5	1,180.3	-5.2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24.2	1,843.5	19.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5월 25일	5월 31일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0.74	86.58	-4.16\$
	Dubai	88.80	106.75	104.89	103.84	101.59	-2.25\$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81.95	272.97	-8.9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3	4.2	3.5	3.6	3.3	3.6	4.0	
	민간소비 (%)	0.0	4.4	2.9	3.0	2.1	1.1	2.3	2.5	
	건설투자 (%)	3.4	-3.7	-11.0	-4.2	-4.0	-2.1	-5.0	2.3	
	설비투자 (%)	-9.8	25.7	10.3	7.7	1.2	-3.3	3.7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